

여성전투기 조종사의 실태

이른바 우먼파워가 세계적으로 거세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오는 97년부터 여성들의 3군사관 학교 지원이 허용될 방침이지만 우먼파워의 진원지인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여성 전투기 승무원들이 항공모함을 타고 해외근무를 마친 뒤 돌아와 화제가 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미국의 여성항공 조종사의 양성 및 근무 배경과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등에 대하여 알아본다. <편집자주>

여성의 전투 임무참가

지난 4월 14일 미국 버지니아주 노포크 군항에 니밋츠급 항공모함 아이젠하워호가 반년만에 원양작전을 마치고 무사히 귀환했다. 동 모함에는 함재 3개 항공단원을 포함해 5천여명이 승무하고 있었는데 그중 약 10%가량되는 415명이 여성이었다. 이것은 해군, 공군쪽의 여성진출이 자꾸만 늘고있는 증거이다.

여성 항공모함 탑재기 전투조종사들이 해외에서 작전을 펴고 돌아오는 이번이 처음이다. 미해군은 이번 임무수행을 계기로 다른 항공모함에도 순차로 여성 전투기 승무원들의 근무를 계속할 방침으로 있다.

항공모함의 전투기 군이 해외에 전개하는 것은 일단 유사시의 실전참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94년 10월 1일자로 발효한 여성의 전투임무참가 승인에 의한 조치이다.

미국 해군에서 여성인력이 처음으로 일하게 된 것은 1908년 해군 간호원군과에 여성이 처음으로 입대하면서 시작되었고 제1차대전때는 사무계 하사관에 처음으로 여성들이 채용 되었다.

그러나 전투 군함에 승무하거나 작전수행의 전투기에 여성이 탑승하는것은 지금까지 80년간 인정되지 않고 있다가 작년 10월부터 길이 열린 셈이다.

2차대전 중에는 미국이나 영국에서 여성들이 훈련교관이나 페리조종사로 부분적이거나 여성의 군용기 탑승이 인정되었으며 소련에서는 여성 조종의 전투기나 폭격기 부대까지 있었다. 이와같은 여성 탑승 허용은 어디까지나 남성 조종사의 인력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작년의 공식 승인과는 취지가 다른 것이었다.

이에따라 여성의 활약분야는 조종사뿐 아니라 앞으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크게 향상 될 것이 틀림없지만 그 길은 결코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외로운 여명

미국의 육·해·공·해병대의 4개군 가운데 여성 조종사의 비행훈련을 인정한 것은 해군이 처음이며 일찍이 1972년에 방침을 정하고 73년 3월부터 바바라. A. 레이니 대위라는 여성이 처음으로 비행훈련을 시작했다. 이때는 베트남 전쟁 말기로 미국방성은 정병제도의 철폐에 따른 전문 특기소유 인력의 심각한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이른바 우먼 리브 운동과 협력하여 여성 군용기 조종사가 생겨나게 되었다.

여성해방(우먼 리브)운동은 60년 대말에 약간 수그러들었으나 그후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철폐 운동으로 바뀌어 66년에 조직된 전미여성기구(NOW)가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앞에 든 레이니 대위보다 앞서서 이미 1973년말에 보오제, 맥윌리엄스 등 두사람의 여성대위가 해군비행 군의관 훈련을 받고 사상 초유의 공중근무 여의사가 되었다. 이 선례를 받아 미공군에서도 여성 조종사겸 군의관을 양성하며 의료 후송기를 타고 다니게 한바 있다.

이렇게 되자 남성승무원들로부터 역차별을 한다는 불만이 높아지게 되었다.



여성 조종사가 탄 함재전투기

제2차대전중 미해군은 비상시 여성지원부대를 Waves라는 이름으로 편성했는데 전후에도 이것이 여성부대의 통칭으로 되었고 여기다 미해군의 독특한 조종사 호칭인 Aviator를 더하여 여성조종사를 Waviator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이말은 비아냥이 다분하여 정식호칭으로 채택되지는 못했다.

미국방총성은 여성의 전투근무를 금하는 Riskroule에 의해 여성은 지상전투, 전투군함, 작전항공기 등의 참가나 승무를 금지해 왔었다. 여성은 위험한 임무를 맡지 않고 보급은 마찬가지인데 대해 남성 조종사들이 비판을 보내는 것은 별로 이상할것이 없다고 하겠다.

여기서 미해군 당국은 국방총성의 금지조항에 저촉하지 않는 범위에서 여성들의 진출영역을 넓혀 왔

다. 여기에는 구난 헬리콥터나 수송기, 연습기등에 국한 되었으나 서서히 참여 영역을 넓히는 외로운 여명기를 지나 지금은 해외파견 전투기 승무원까지 나타나게 되었다.

미해군의 여성취역 연표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76. 1 : 로즈마리 중위가 A4 스카이하크 조종사 자격취득

▲ 79년 : 해군비행사관(NFO)에 여성등용 결정

▲ 79. 7 : 스프루일대위가 최초로 여성함재기 승무조종자격 취득

▲ 82. 7 : 비행교관을 하던 레이니 소령이 순직

▲ 83. 6 : 네비우스 대위가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시험비행사 자격취득

▲ 84년 : P-3C Orion초계기의 지상지원에 여성을 임용

▲ 88년 : 전자정찰부대에 여성등용을 개방

▲ 88년 : 최초의 여성우주비행사 선발

▲ 89년 : 마리나 중령이 전자정찰부대의 비행 부대장에 취임

▲ 90. 7 : 비행대장으로 승진

▲ 92. 9 : 두번째 여성 비행대장 탄생

한편 美공군에서도 1963년 5월부터 공중수송단을 비롯한 수송, 연습, 구난, 헬리콥터등의 한정된 지원기에 대해 승무를 인정했다.

90년 8월에 걸프만전쟁이 터지자 경제봉쇄를 위해 다국적군의 일원으로 많은 미국 해·공군기가 걸프만해역에 모여들게 되었고 거기서 여성 조종사들은 병참수송, 본국 연락비행, 공중급유, 환자후송, 보급등에 투입되었다. 그 결과 프로도 한명생기고 육군 항공대에서는 수송기 조종중 순직자도 나왔다.

걸프만 전쟁을 계기로 미국에서는 여성 병사의 전투참가를 두고 가부양론이 치열한 논쟁을 벌인 끝에 91년 5월 미국하원은 드디어 여성조종사의 전투참가를 인정하는 법안을 가결했고, 상원도 7월에 가결하여 하늘에서 먼저 여남동권이 결정되었다.

이외의 사건

이렇게 여성 조종사의 지위가 공식화될 무렵 라스베가스에서 뜻밖의

사건이 발생했다.

1991년 9월 7일 이곳의 힐튼호텔에서 미해군 함재기 승무원의 친목단체가 연차총회를 열고 있었는데 NATC소속 여성 헬리콥터조종사 코프린 대위가 호텔 복도에서 10여명의 남성조종사들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

동 총회에서는 위의 코프린 대위 외에도 25명의 여성이 남성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고 그 반수 이상이 해군, 공군, 해병대 소속 여성 장교 조종사들이었다. 코프린 대위는 이 사실을 직속상관에게 호소했으나 모른척 하여 다시 해군상부에 직소하기에 이르고 말았다. 그 결과 해군장관이 인책사직하고 직속상관으로 모른채 했던 비행단장은 해직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해군의 조사에 이상을 느낀 상원 군사위원회가 해군성에 재조사를 명했다. 그 결과 전번의 조사담당 감찰관에게도 문제가 있음을 알고 두사람의 소장이 인책예편 되었다.

이 사건으로 93년 4월까지 여성조종사가 성희롱사건과 관련하여 해군 제독 30명, 해병대 장군 2명, 해군에 비역제독 3명, 장교 약 140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문제의 코프린 대위는 다액의 위자료를 손에 쥐기는 했으나 사건이 일단락 되는것을 보고 해군에서 제대하고 말았다.

이러한 여성옹호 조치는 여성조

종사의 전투참가 승인 법안이 가결된 까닭도 있겠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Waviator라는 비아냥이나 떠들어대며 여성조종사들의 진출을 그냥 두었으면 문제가 없었을 터인데 여성쪽의 영역이 법률을 배경으로 확고해지는데 따라 남성측에서 이것을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심리가 술을 마시고 취한김에 성희롱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오랫동안 남성 그것도 백인남성 중심으로 운영 되어온 미국의 군대 조직에 비록 소수파이기는 하지만 여성을 비롯하여 미국 원주민인 인디언, 그리고 흑인과 아시아계까지 한데 섞이게 되면 그들의 우월주의 심리가 다른 인종이나 이성을 희롱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미국방총성 당국자는 군의 통수권을 정비하고 분위기의 쇄신을 통한 명령체통의 확립을 위해 손을 써야할 불가피한 처지에 놓이게 된것도 이해가 된다. 군대 내부의 구조개선을 위해 일조일석에 그런 모순이나 희롱을 깨끗이 처리할 수는 없으나 조용하게 그리고 천천히 변혁의 물결이 일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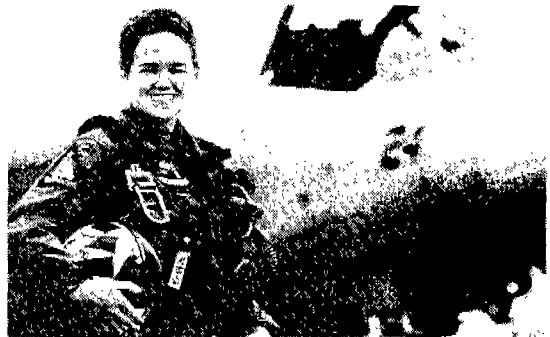
우선 93년 2월에 육·해·공 3군의 장관을 모두 여성으로 임명했다. 그 결과 공군의 워드널장관만이 취임했을뿐 육군과 해

군장관은 남자들이 차지했다. 해군 항공승무원협회는 그후 총회장에 나타나던 누드댄서를 폐지하고 항공기나 술과 벽에 그리고 붙이던 여자의 나체 사진이나 그림을 전부 지우게 되었다고 한다.

항공모함에도 진출

지금까지 여성을 전투 승무원으로 쓰지 않은 것은 모성보호, 남녀의 체력차, 종교적 이유가 있었지만 이런 차이는 여성과 남성 사이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폐지되어 여성에게도 같은 권리와 자유가 주어진 것이다. 이제 여성들은 수송부대의 대원이 되거나 상륙부대의 선두에 서든지 또는 수송기를 몰거나 전투기를 조종 적기를 격추하고 탱크를 타고 격전장을 누비는 등의 일은 전적으로 여성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달려게 되었다.

이미 여성 조종사를 인정한지 20년이 지난 미국에서 우수한 교관이나 비행대장을 지낸 지도적 여성이 나온것은 당연하며 앞으로는 최전선



美해군 함재전투기 여성조종사 제1기생으로 순직한 할트 그린 대위

에서 남녀의 전우가 똑같이 싸우게 될 날이 닥쳐올 것이다.

작년 10월 F-14전투기의 첫 여성 조종사 할트그린대위가 항공모함으로 착항하다 실수하여 순직했다. 해군당국은 이 항공기를 1,300m의 심해에서 건져내어 “여자가 항공모함에 착함하는 조종을 하기에는 무리”라는 일부의 공론을 잠재우기 위해 끝내 사고기를 건져 내었다.

미국방총성도 여성 취역금지조항을 철폐하는 전단계로 여성들의 전투참가 또는 전투기 조종등을 익힐 기회를 주기로 했다. 그 결과 공군의 여성장교들이 항모이착함자격등을 취득하고 있다.

여기서 미공군당국은 공사출신의 여성장교 6명을 실전 조종사로 임명했으며 17명의 여성 하사관과 장교가 여러 분야의 비행훈련을 받고 있다. 해외기지인 오키나와의 가테나기지, 한국의 오산기지등에도 배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일본 본토의 아쓰기 기지에도 몇사람이 파견되어 있다.

미국외의 사정

미국 이외의 여러나라 사정은 어떤가.

영국에서는 금년(95) 2월에 영국 공군소속의 셀터 중위가 토네이드 전투기를 몰아 여성 전투기 조종사 1호로 기록되었다. 이에 따라 어쩌면 영국이 미국보다 먼저 여성 전투

기 조종사에 의한 공격이 행해질지도 모른다고 보고 있다.

영국은 이미 1959년부터 기지 지원업무에 여성 인력을 참가 시켰으나 여성조종사의 양성을 결정하기는 1989년의 일이다. 이 조치에 따라 김슨 대위가 영국 최초의 군용기 조종사 면허를 취득하여 수송기를 몰고 다닌 외에 89년 12월 여성의 전투기 조종승무를 인정하여 현재 몇사람의 우수한 조종사를 배출하고 있다.

영국 해군은 90년 2월 전투함정이나 함재 전투기의 승무를 인정한다고 발표한바 있다.

항공모함에 여성조종사를 태운 것은 영국이 미국보다 빨라 한 항공모함에 70~80여명의 조종사가 근무하고 있는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NATO 가맹의 서방 각국은 대개 여성의 전투기 승무를 인정하고 있다. 그중 화란의 프로그 중위 같은 여성은 보스니아지역에 전개하여 초계비행에 참가하고 있으며 그녀는 또 F-16A기종의 조종자격을 취득해 유럽 대륙에서는 여성 전투기 조종 1호가 될 전망이다.

끝으로 일본에서는 해상 자위대가 최근 여성을 태우고 첫 원양연습항해를 시작했으며 항공기 조종사의 경우도 해상자위대

쪽이 한발 앞서 있다.

일본의 첫 여성조종사는 92년 12월에 고정익기 기초과정을 마친 미야모도양으로 지금 잠수함 초계기인 P-3C를 타고 있다고 한다.

한편 일본 항공자위대에서는 지난 5월에 다케우찌 소위가 비행훈련을 받기 시작해 여러 과정을 마치면 어떤 여성조종사가 될 전망이다이라고 한다.

그외에 항공학생과정에 3명의 여학생이 항공조종을 수련중에 있는데 이들이 졸업하는 98년경에는 전투기 조종사뿐아니라 일반 민간 항공기 조종사도 나올 모양이다.

그런데 일본은 명목상 여성의 참여를 인정했지만 실제로 수업을 받는 지망자는 많지 않아 마치 구색을 맞추기위한 것 같은 느낌이다.

이제 세계적으로 어떤 직종을 막론하고 여성이 남성의 영역에 진출 경쟁하는 것이 보편화되고있어 항공 우주분야에도 같은 바람이 불것 같다.



일본자위대의 여성조종사 1호인 미야모도 중위